

<조선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경위 및 국제적 관습에 대한 고찰

사공 준

21세기의 일반적인 추세의 하나는 지명표기에서 식민지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통일된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의 하나는 지난 세기에 조성된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는데 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지난 세기에서 물려받은 식민지적잔재를 청산하는 운동이 보다 적극화되어 있다. 그 예의 하나가 IHO에서 신판 <대양과 바다의 경계>출판과 관련하여 외국표기된 지리적 명칭을 검토하여 본래의 옳은 정당한 지리적 명칭으로 되살리는 움직임이다.

IHO는 세계의 해도작성의 지침으로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이란 소책자를 2002년에 반세기만에 개편하는 예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시책자에는 <일본해>가 단독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1919년 6월 최초의 회의(24개국, 총회참가 18개국 London)에서 일본의 제기에 따라 <조선동해>표기를 폐하고 <일본해로 통일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의 역사외곡의 일환이었다.

만약에 이번 개편하는 기회를 놓치면 금후 또다시 수십년 간 이 역사적 외곡을 방치하는 것으로 된다.

일본외무성은 <일본해> 단독표기에 고취하고 있으며 모든 외교적수단과 막대한 자금을 주입하여 국제관계기관과 여러 나라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조선해>표기문제의 중심은 민족주의문제가 아니다. <조선해>, <동해> 표기문제의 중심은 역사적 사실과 지리학적 정당성에 있다. 조일 양국은 자국의 역사기록에서 찾아 보아도, 세계의 지도역사상으로 보아도 <조선해>, <동해>표기는 <일본해>표기보다도 논거가 있다는 지명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민족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조선해>표기문제가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에 관한 문제로 되며 그것은 또한 후세들에게 후과를 남기게 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1. <조선해>표기와 일본의 움직임

<조선해> 및 <동해>표기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조선측이 말하는 <동해>는 세계해명에서 유사한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2) 세계지도에서 해당해역의 이름이 “Sea of Korea”는 찾아볼 수 있지만 “East Sea”는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조선측은 20세기말이 되어서 비로서 <East Sea>로 <불법적으로 변경>시키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해>는 반세기전부터 일반화된 표기이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4)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적으로 확립된 단일명칭인 <일본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5) 조선측의 주장을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요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IHO의 목적인 <수로도지(水路圖誌)의 최대한의 통일>에 어긋하게 된다. 그러니 항해안전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일본해>표기의 지속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6) 조선측은 <동해>표기문제만 주장하고 다른 주변 바다들인 <서해>, <남해>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다. 또한 중국과 Russia는 <동해>표기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7) 일본은 만약 IHO지침서에서 <일본해>표기로부터 <동해>표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국(일본국내)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부르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8)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일본해>표기가 고착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현재 출판되어 있는 지도를 <조사>까지 하여 <일본해>표기의 빈도를 계산하여 그 숫자까지 발표하고 있다.

9) 여러 나라들이 인접하는 수역에 관하여 해당 주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국의 명칭을 바다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UN CSGN(국련지명표준화회의)의 권고(勸告)를 자기들은 (일본은)무시한다는 주장이다.

10)일부 일본신문 (예 “The Yomiuri”사설 등) 보도한 바와 같이 두개의 바다이름을 <복수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 해양이름을 섬을 중심으로 호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일본의 주장의 부당성

이상 본 일본의 주장은 理致에 맞지 않으며 부당한 주장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은 歷史主義原則과 國際慣習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 <동해>표기에 대하여 본다면 <동해>이란 명칭은 세계에는 많다는 것이다. 일본이 말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에는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있다. 이 두 바다를 월남, 중국은 <동해>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Baltic Sea도 주변나라들에서는 <동해>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 조선이 주장하는 대로 <동해>로 정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위에서 지적된 <동해>는 자국에서 부르는 바다이름이다. 사실 Baltic Sea를 Estoniya어로서는 <서해>로 칭하고 있다. Russia는 Baltikoe More, 또한 독일은 Ostsee, Sweden에서는 <동해>로 호칭하고 있다. 바다에 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자국의 주변바다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다하다. 이와 같은 국한된 지역에서의 이름이 국제적인 바다이름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해왔다 하여 지금까지 혼란이 생긴바도 없다. 그러나 <조선해>, <동해> 표기는 이와는 달리 세계에서 긴 역사적시기를 통하여 불리워 온

바다이름이다.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오랜 역사에 걸쳐 이미 <조선해>로 불려 왔으며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즉 <조선해>, <동해>는 국제적인 바다이름이다.

일본외무성이 여기에 대하여 한 가지 답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75년의 <중일어업협정> 또한 신중일어업협정(1997/11서명, 2000/6/11발효)시의 아시아국(局)의 사또시게가즈(佐口中和)의 발언, <신어업협정>에서 <동중국해>로 통일한 경위, 일본의 <국토지리원(國土地理院)> 및 <해상보안청해도(海上保安廳海圖)>에는 IHO(가명국 72개, 투표권 가진 나라 69개)는 대륙을 기준으로 한 <동중국해>로 통일한 바다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 자체가 지역에서의 바다이름과 국제적인 바다이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2) “Sea of Korea”는 찾아볼 수 있지만 “East Sea”는 없다. <동해>로 표기된 지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대하여 말한다면 <동해>이란 즉 <조선해>이다. 역사적으로 인정된 본래의 고유한 이름으로 회복시키는데서 <조선해>와 동해>는 동의어이다.

“Sea of Korea”, “Mare Oriental(Orient Sea)”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가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해>이란 나라이름을 단 명칭은 외곡된 명칭이다.

몇가지 예를 올린다면 414년의 <광개토왕릉비>로부터 시작하여 시대가 내려와 1145년의 <삼국사기>, 1284년의 <삼국유사>, 1794년의 일본에서 출판된 <아시아전도>, 1809년의 일본의 官撰地圖(국가가 출판한 지도)인 <일본변계략도>, 서양의 1440년의 <아시아지도>, 1615년의 France의 <아시아지도> 등 150종 이상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19세기의 “Eastern Sea”는 현재의 동중국해이다란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서양지도는 해당해양의 바다이름이 <조선해>이다. 중국동부의 바다이름이 동양해로 부른바가 있었다하여 혼란이 생긴바가 없다. 혼란이 생긴다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3) 조선측이 20세기가 되어서 <동해>표기를 제기했다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해>이란 서양인이 먼저 부른것이라는 것인데 Mattered Ricci의 <坤輿萬國全圖>(1615)가 최초이다. Russia의 Adam Johan von Krusenstern의 지도(세계주항기 1815~12)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시기에 세계에서는 탐험 분위기가 있어 구체적인 사전조사도 없이 동양에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인들은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지명을 자위적으로 그것도 <최초로 발견>했다는 식으로 기록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관련이 있는 지명을 보아도 <독도>를 들 수 있다. 서양인들은 <독도>를 <최초로 발견>했다고까지 하여 기록까지 남기고 있다. 이렇게 하여 독도이름이 몇 개나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서양인>들이 불렀다하여 <일본해> 표기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참고 Mattered Ricci<坤輿萬國全圖>[(1602년:베이징, 현존3점) 이 지도는 중국에서 5회 제작한 세계지도, 1584(肇慶), 1600년(南京), 北京(1602년” 坤輿萬國全圖”, 현존),1603년의 “兩儀賢圖, 현존”, 1604년제작자도], 화란의 <日本 및 蜈夷圖(1659년)>

둘째로, 조선사람이 삼방의 바다를 <동해>, <서해>, <남해>로 부르는 것은 <막연한>것이며 바다이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해역이 바다가 아니면 무엇인가. 일본측의 주장은 아무런 과학성이 없는 露骨的인 민족차별의식에서 발상된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일본해>표기는 IHO(지명통일회의)후에 <공식화>된 명칭이라는 것이다. 1929년 지침서작성시(Monaco)에 일본이 <일본해>의 호칭을 <강력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어긋나다. 일본은 3명(左近司:군인, 山口:군인, 漆)이나 <대표>를 참석시켰으나 우리 대표는 한 사람도 참가하지 못했다. 우리 나라는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회의)에서 결정을 본 것은 타당성이 없는 일이다.

4) 에 대하여 말한다면 <일본해>표기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나라(Korea)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역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도덕이 없는데는 정의도 없다.

5) 에 대하여 말 한다면 <조선해>, <동해>표기를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명변경을

주장하게 되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일본해>표기를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주장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도덕에 관한 문제이다. 저들이 불리하게 되면 피하는 것은 일본의 상투적수법이다.

6) 에 대하여 말한다면 외 <동해>표기만 주장하는가이란 말이다. 이 주장에 대하여서는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황해>를 <서해>로, 동중국해를 <남해>로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일본이 IHO를 정치문제에 개입시키려는 음모로 된다. 일본은 IHO는 정치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과 Russia는 우리의 주장을 주시하고 있다. <황해>는 특정국가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조선해>표기문제를 복잡하게 하려 하고 있다.

7) 이것은 일본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조선해>, <동해>의 사용을 반대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하여야 하겠다는 반문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02/8/26부터 개최된 제 8차 국련지명표준화회의(UN CSGN, Berlin)에 또한 <해상보안청>까지 동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국내의 각지방의 자치체에 <일본해>표기에 대하여 <침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8) 일본이 조사한 지도는 세계적으로 지도가 대량 인쇄된(현재의 지도)>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으로 본래의 역사적인 지명유래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로 자기들을 정당화한다면 일본측이 보다 불리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Europe의 고지도에 “동해”표기, “일본해”의 정당성 무너진다>(동양경제일보 2001/8~/9)에는 <해외홍보원(海外弘報院)>조사에 의하면 영국국립도서관소장의 영, 불, 화, 로의 16~19세기의 고지도 90점 중, “Sea of Korea”가 64점, “Orient Sea”가 9점, “Japan Sea”는 8점이다. 일본측은 고의적으로 자기들에 유리하게 최근시기(현재)의 지도를 분석하고 있다. 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일본이 <일본해>표기를 주장한 이후시기의 지도이며 그것도 대량 출판된 이후시기의 지도를 <분석>하여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분석>한 시기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지도를 보면 일본이 주장한 부당성이 더욱 뚜렷하게 된다. 19세기이전시기의 <미국의회도서관>소장지도 228 점 중 “Sea of Korea” 및 “Oriental Sea” 표기가 68점, “Sea of Japan” 표기가 14점, 병기가 3점, 무기명이 125점,

기타 중국해, 만주해 등이다. (조선일보 2001/1/20). 여기에 명기된 103점의 고지도 중 영국지도는 53점이며 그 중 38점은 <조선해>, 불, 독의 거의 모든 지도는 <조선해>, 미국의 1793~1796년의 5점의 지도는 모두 <조선해>, <조선만>이다.

9) 일본은 UN CBGN(국련지명표준화회의)의 권고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세계에는 주변 나라들에서 동의에 의하여 시정된 바다이름이 있다.

현재 Saudi Arabia 와 Iran사이에 있는 바다이름은 Arabia Gulf이다. 이 바다이름으로 말한다면 Str. Hormuz의 안쪽의 바다이름은 Persian Gulf으로 알려져 있었다. 두말할 것 없이 Persian 이란 이 지역의 지명이 아니라 Iran의 과거 나라 이름이다. Saudi Arabia, Kuwait등 인접국가는 자기들의 바다이름을 과거에 이 주변지역의 패권국가였던 Persia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의론결과 특정국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Arabia Gulf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도 조선, Russia, 중국, 일본 등 4개의 연안국가들을 가진 국제적인 바다이다. 우리는 이 바다를 <일본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2000년간 이상 우리가 부르고 왔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다이름은 <조선해>이다.

10) 바다이름을 <병기>하자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명, 또는 바다이름의 표기는 문화적 전통에 입각한 고유한 권리의 하나이다. 물론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이 아닌 국가가 발행하는 지도, 해도 등에서 명칭상 갈등이 존재하는 <지점>은 병기하는 경구가 있다. 그러나 연안국내에서 사용하는 지도, 해도에서 자국어의 동상적(通常的)인 명칭아닌 타국이 사용한 명칭을 표기하는 의무는 없다.

11) 섬을 기준으로 하자는 일본측의 주장은 해양이름의 국제적관습을 무시한데 있다. 반도와 섬사이의 바다이름을 섬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일본이 말하는 구라과의 바다이름에 대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협지와 토론을 거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Dover Strait 는 Dover Stir, or Pas de Calais로, English Channel는 English or La Manche로 되었다. Spain과 프랑스 사이의 Bay of Viscay는 Bay of Viscay or Gulf de Gascogne로, 영국, 프랑스, 독일, Denmark의 4개국으로 둘러싸인 바다는 North Sea로 되었다.

영국과 Iceland사이의 내해인 Irish Sea, 영국과 France사이의 English Channel, 여기에서 Irish Sea는 2개의 섬나라 사이의 바다이며 대륙과 영국(Great Britain)사이의 바다는 North Sea이다. 이것은 Sea of Britain은 아니다. 이것은 다 channel이다. 조선과 일본 쓰시마섬(對馬島)사이의 바다는 조선해협이고 쓰시마와 일본, 혼슈, 규슈 사이의 해협은 쓰시마해협이다. 이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어긋나게 국제적 관습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 가장 露骨的인 것을 하나만 올린다면 토론자체를 거부하는것이다. 지명표준화에 관한 제7차 국련대회가 진행되었을 때 일본대표는 조선동해에 대한 표기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나가자, 토론자체를 거부하였다(2003/1/13~22).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하게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세계사회에 대한 우롱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조선동해에 대한 표기를 옳게 제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지명상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적죄악을 청산하는가 어떤가 하는 중대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20세기가 남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조선인민에 대한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침략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보도계는 우익화되는 사회풍조에 <호응>하여 <조선해>, <동해>표기로 회복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에 대하여 민족적 감정까지 노골화시켜 보도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부 신문은 악의에 참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조선해>, <동해>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되자 역사적원칙마저 무시한 무슨 새로운 <명칭>까지 주장하는데까지 이르러 있다. 예컨대 <아시아내해>, <극동해>, <동아시아해>, <창해:Blue Sea>, <연해: 綠海>, <청해 : 靑海>등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본래 지명이란 역사적산물이다. 그 지역의 오랜 역사, 문화전통, 사람들의 생활 과정에 정해지는 문화유산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외부의 사람이

자기의사에 따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지명에는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다.

<조선해>, <동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땅 동부에 있는 바다 이름을 <조선해>, <동해>로 불러 왔다고 세상은 알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이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일본해>이란 외국 표기된 기간이란 오래지 않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1440년의 Vineland map. Caroline, Yale University를 비롯한 그 후의 150점 이상의 지도, 18세기에는 영국지도(1710:Sea of Corea), 대영국백과사전(1778:Sea of Corea), Cambridge대학도서관소장의 18세기의 고지도 61점에서 Korea관계가 34점, 중국관계가 11점, 일본관계가 6점, 조선과 일본의 병기가 3점이다. (조선일보 2002/10/23)

다시 강조하면 예컨대 British Library(영국국립도서관)이 소장한 17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고지도 90여 점 중 72점은 해당해양의 기술내용은 조선에 관한 부문에서 취급되어있다. (62점이 Sea of Korea, 8점이 Oriental Sea, 2점이 Eastern Sea이다.)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당 해양은 조선에 관련되는 바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것이 세계의 주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지도학적연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해당해명의 명칭은 일본에 관련되는 기술보다 조선에 관한 기술이 보다 빈번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맺음

<조선해>표기가 <일본해>표기로 본격적으로 <변경>된 것은 20세기 초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 전후시기이다. 그 때까지 일본은 일본역도의 동쪽해역의 태평양에 <일본해>, <대일본해>로 호칭해왔다. 이 시기의 지도에는 일본열도의 서쪽에 있는 바다이름을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열도 동쪽에 있는 바다이름이 <태평양>으로 고착되고 그 해역을 <일본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조선해>부분을 <일본해>표기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일본은 이 때 Pilipp Franz van Siebold(1796~1866)가 번역을 잘 하지 못한 채

<조선해>를 <일본해>표기로 하여 간행한 지도를 백방으로 이용하여 <일본해>표기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날뛰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 출판물 <대양과 바다의 경계>에는 <조선해>, <동해>를 삭제하고 <일본해>로 <고착>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해>, <동해>표기가 <일본해>표기로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이며 잔재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해>이란 바다이름이 고착된 것은 20세기 초이다.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가 일본에 의하여 박탈당한 사실상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조선해>, <동해>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조차 없었다. 즉 일본에 의하여 바다이름조차 강탈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 적당할 것이다.

Russia, 중국, 미국의 지리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해당해명의 명칭이 <일본해>로 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다. 이것은 서양세계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부터 동부아시아에 대한 팽창정책을 실시한 일본의 영향력이 깊어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HO에서 바다이름 결정을 한 20세기초의 경우, 일본은 조선반도와 기타 연안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고 조선, 중국, Russia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기지(既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본이 <일본해>표기를 고취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이외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일본해>표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니 하면서 IHO를 비롯하여 각국에 대하여 비결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옛 식민지통치의 재생을 기도한 행위가 아닌가란 기구까지 생긴다.

조선동해의 <일본해>표기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불미스러운 잔재이며 응당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국제적추세는 조선반도 동쪽의 바다이름을 본래의 이름인 <조선해>, <동해>표기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져 가고 있다.

일본은 저들이 외곡한 부당한 주장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침략적 저의가 보이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리론당당한 주장에 호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지도, 지도첩을 국제사회에 널리 보급, 침투시키는 운동을 널리 전개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다 많은 나라들에 우리의 영어판 세계지도를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에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바다이름을 짓자는 움직임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해>가 있으며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호칭해 온 <동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상스럽게 새로운 바다이름을 생각하는 여지는 없는 것이다.